

오픈이노베이션 성과기업 후속 지원

중기부, 26일까지 우수 스타트업 80개사 내외 모집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이노베이션(개발형 혁신) 사업에 참여한 우수 스타트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후속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오픈이노베이션 참여기업에 대상으로 시장검증(PoV)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성과기업 후속 지원' 사업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오는 8월 6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기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통해 발굴된 성과가 실제 사업화와 투자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새롭게 마련했다.

중기부는 기술 검증을 마친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제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검증하고, 투자유치와 구매 계약 등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화 자금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참여기업 가운데 최종평가에서

우수 또는 최우수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거뒀거나 수요기업의 협업 의향서를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지원 유형은 '성과 우수형'과 '후속 협업형'으로 나뉜다.

성과 우수형은 우수 성과를 거둔 스타트업과 수요기업 간 미팅(Meet-up)을 통해 협업을 구체화한 뒤 평가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후속 협업형은 기존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종료 이후에도 수요기업과 협업을 이어 가려는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시장검증(PoV)과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공모를 통해 스타트업 80

개사 내외를 선정해 기업당 최대 2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오픈이노베이션의 성과가 기술 검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시장검증과 구매·투자 등 사업화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후속 지원이 중요하다"며 "성과가 검증된 스타트업과 수요기업이 협업을 지속하고 혁신기술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후속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 방법과 세부 지원 내용은 K-Startup 누리집에 게시된 '성과기업 후속 지원'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상근 기자

AI 활용 기초연금 홍보 콘텐츠 발굴

국민연금공단, 9월 16일까지 공모전 개최

국민연금공단이 기초연금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 발굴에 나선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초연금 국민 참여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하고 오는 9월 16일까지 참가 작품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정확하게 알리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공감형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주제는 '인공지능(AI)으로 알리는, 모두에게 힘이 되는 기초연금'으로, 영상 콘텐츠와 이미지 기반 콘텐츠 두 분야에서 진행된 다. 기초연금에 관심 있는 국민이

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당 영상과 이미지 분야를 합산해 최대 2개 작품까지 응모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8월 5일부터 9월 16일까지이며, 국민연금공단 SNS 채널과 온·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안내되는 접수 홈페이지에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총 6개 작품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을, 우수상 2명과 장려상 3명에게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상과 각각 상금 50만 원, 3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국민연금공단 SNS 채널과 전국 지사 전광판 등 온·오프라인 홍보매체를 통해 기초연금 홍보 콘텐츠로 활용된다.

/오상근 기자

국가 바이오정책 공유·전북 그린바이오 미래전략 모색

전북바이오진흥원, 제18회 바이오지식포럼 개최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국가 바이오정책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전북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은 5일 바이오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18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개최하고 국가 바이오정책 방향과 지역 바이오산업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북이 생명·바이오 분야 경쟁력을 확보해 바이오클러스터로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지식공유 프로그램이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포럼의 '문샷(Moon shot)'은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도전과 연구를 의미한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식품·바이오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혁신기관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정찬민 서기관의 주제 강연과 참석자 토론이 이어졌다.

정찬민 서기관은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과 바이오정책의 최신 방향'을 주제로 국가 바이오정책의 비전과 주요 추진 전략을 설명하고, 국가 정책과 지역 농생명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강연에서는 글로벌 선도산업 육성,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혁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창업 및 사업화 투자 확대, 글로벌 공동연구와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등이 주요 과제라고 소개했다.

또한 바이오 데이터와 산업 클러스터, 연구 인프라를 연계하고 규제 혁신, 융합인재 양성, 바이오안보 강화를 통해 바이오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공유됐다.

특히 농업·식품 분야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그린바이오산업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5일 바이오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제18회 바이오지식포럼(문샷)'을 개최했다.

육성 전략도 논의됐다. 그린바이오는 농업생명자원에 생명공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 등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소재와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종자·동물용의약품·미생물·곤충·천연물·식품소재 등 6대 분야를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

바이오진흥원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전북이 보유한 농업생명자원과 연구·생산·실증

인프라를 연계하고,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과 제품화, 투자유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와 중앙정부 정책에 맞춰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전북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린바이오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과 기업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전주중산신협, 지역아동센터와 어부바 멘토링 문화체험

전주중산신협이 지역아동센터 아동들과 가족들을 위한 문화체험 활동을 마련하며 지역사회 나눔 실천에 나섰다.

전주중산신협(이사장 라양노)은 지난 7월 30일 아이들전국지역아동센터(센터장 정미순)와 함께 어린이와 학부모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전북 완주군 아미존 아쿠아파크에서 문화체험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중산신협과 아이들전국지역아동센터가 체결한 '2026년 신협 어부바 멘토링'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번 문화체험은 어부바 멘토링 프로그램 4회 활동으로,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고 또래 친구와 멘토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과 유대감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전주중산신협은 참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워터파크 입장료와 식사비, 차량 임차비 등 행사 비용 전액을 지원했다.

/오상근 기자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부안초 관악부에 발전기금 전달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길환)가 지역 미래 음악인재 육성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부안초등학교 관악부에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5일 부안초등학교 관악부에 인재육성 발전기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장길환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을 비롯해 김강주 부안초등학교장, 조상완 농협 부안군지부장 등이 참석해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다졌다.

이번 발전기금은 학생들의 음악 교



육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기금은 노후 악기 교체와 신규 악기 구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에 활용될 예정으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음악 활동을 경험하며 음악적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상근 기자

전북테크노파크, 10일 'Tech & Talk' 개최... 산업 대전환 시대 미래 전략 모색

전북테크노파크가 산업 대전환 시대의 미래 전략과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지식공유의 장을 마련한다.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는 오는 10일 오후 4시 전북테크노파크 2층 대강당에서 제68회 'Tech & Talk'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산업 대전환 시대의 미래 전략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리며,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이 연사로 나서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 대

한민국 산업이 직면한 과제와 미래 성장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Tech & Talk'는 전북테크노파크를 대표하는 지식공유 프로그램으로, 산업·기술·경제·정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최신 동향과 미래 전망을 공유하고 임직원의 정책기획 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제68회 강연은 그동안 축적해 온 지식공유와 산업혁신 네트워

크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산업계와 학계, 연구계, 공공부문 전문가들의 강연을 통해 미래 산업과 기술,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산·학·연·관 협력 기반의 산업혁신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윤의준 회장은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교수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초대 총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국공학한림원 회장과 국가과학기술지문화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내 공학기술 분야를 대표하는 한국공학한림원을 이끌며 국가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전략 제시에 기여하고 있는 공학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글로벌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민국 산업의 발전 방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을 폭넓게 제시하고, 전북이 미래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과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면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공각



내아

전주매일 캠페인